

다이쇼인 절: 조쿠간도(본당)

다이쇼인 절의 본당인 조쿠간도에는 다이쇼인 절의 본존이기도 한 부동명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불교의 오대명왕(불교에서 말하는 다섯 지혜의 왕) 중 한 명입니다. 조쿠간도는 본래 12 세기 미야지마 섬을 방문했던 도바 천황(1103~1156)의 명에 따라 지어진 건물로, 다이쇼인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조쿠간(勅願)이란, ‘천황의 기도’라는 뜻으로 특히 일본 전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10년에 재건된 지금의 조쿠간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시무시한 외형을 지닌 부처 부동명왕이 ‘파도를 가르는’ 모습을 표현한 나미키리(일본어로 파도를 가른다는 뜻) 부동명왕상입니다.

나미키리 부동명왕에 관한 전설에는 다이쇼인 절을 세운 승려인 구카이(774~835)가 등장합니다. 유학을 했던 중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에 휘말리게 된 구카이는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는 가운데, 신성한 나무로 부동명왕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풍채를 자랑하는 부동명왕이 거친 파도를 가라앉혀 주었고, 구카이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6세기의 다이묘(영주)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나미키리 부동명왕을 숭상하며, 자신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배에 나미키리 부동명왕상을 태웠습니다. 현재 조쿠간도에 안치된 불상은 히데요시가 기증한 것으로, 바다 건너 미야지마 섬을 찾는 여행자들을 수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쿠간도의 네 모퉁이에는 오대명왕의 나머지 네 명왕인 강삼세명왕상(동), 군다리명왕상(남), 대위덕명왕상(서), 금강야차명왕상(북)이 있습니다. 조쿠간도를 돌아본 후에는 신들에게 소원이나 기도를 에마(말 등의 그림이 그려진 나무판)에 적어 조쿠간도의 건물 옆 벽에 걸 수 있습니다. 에마는 일정 기간 동안 벽에 걸어둔 후에 불을 피워 공양합니다.